



Korea-Japan Youth Conference 2018

booklet

Our Human Rights Stories

— What is “beauty” for us? —



organized and implemented by
Korea-Japan Youth Conference 2018 executive committee

Table of Contents

1. 배경 · 취지 설명 (실행 위원장 · 후쿠다 모모) ...2

2. 이벤트보고
 - 2-1. "나의 인권의 이야기" 고베 개최
왜 우리는 외형으로 판단하는가? ~가마가사키지역의 빈곤 문제 사례에서~ (후쿠다 모모) ...4
 - 2-2. "나의 인권 이야기" 도쿄 개최
"아름다움"은 누가 결정하는가? ~루키즘에 관한 한일 비교~ (부실행위원장 : 오쿠라 시오리) ...6

3. 외모지상주의(루키즘)의 체험담 / "우리에게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8

4. 외모지상주의(루키즘)에 관한 앙케이트 결과 및 고찰 (오쿠라 시오리) ...10

5. 한국 청소년들의 목소리 ...23

1. 배경 · 취지설명

「나의 인권 이야기」는, 2017 년도의 일본 YWCA 와 한국 YWCA 의 공동주최 프로그램 「일한 유스 협의회」를 마치고, 기획된 이벤트 시리즈입니다. 2017 년도는, 일본과 한국의 젊은이가 3 박 4 일간,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을 생각한다.~사회적 승인과 빈곤~」이라는 테마를 정하여, 스터디 투어 형식으로 배웠습니다. 가마가사키의 현장학습을 통해서, 외모(외형)에 의한 편견을 포함하여 차별의 대상이 되는 일용노동자와 젊은이의 자기긍정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 테마가 더욱 자신것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한일 유스 컨퍼런스를 통해 배우고 세워진 활동 계획을 이어받아 컨퍼런스 이후에도 보다 좋은 사회를 목표로 해서 무엇인가 액션을 일으켜 가야하지않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갖은 30 세 이하의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실행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2018 년도에 기획·실시해 온 프로그램입니다.

「나의 인권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루키즘(외관에 의해 사람을 평가·판단·차별하는 현상)」을 키워드로,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벤트 시리즈입니다. 특히, 젊은 유스 세대를 중심으로, 가려진 인권문제를 접하면서 자신의 삶의 어려움이나 답답함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자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실시했습니다. 이벤트는 2 부구성으로, 제 1 부는 강연, 제 2 부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여 인권을 생각하는 워크숍으로 진행했습니다.

고베 개최에서는, 2018 년 10 월 20 일(토) 고베 YWCA 채플에서 실시했습니다. 테마는 「왜 우리들은, 외형에서 판단해 버리는가? ~가마가사키 빈곤문제 사례에서~」, 강사로는 白波瀨達也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도쿄 개최 때는 2018년 10월 28일 치요다플랫폼 스퀘어에서 실시했습니다. 테마는 「『아름다움』은 누가 정합니까? ~루키즘에 관한 일한 비교~」, 강사로는 西倉実季니시쿠라 미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최근, 「인클루시브 사회」라는 말을 듣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회에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서로 존중해서로 지지하는, 다 같이 살아가는 사회. 그런 사회가 실현되면, 정말 멋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에서는 살기 어려움을 안은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살기 어려움이 개인의 문제입니까? 특정한 누군가가 차별되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받아들여지는 사회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연령이나 국적, 성, 장애의 유무...등, 달라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 인클루시브 사회의 실현 위해서는, 지금까지에 구성되어 온 가치관의 변용이 요구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이벤트 시리즈의 키워드인 「루키즘」. 실행 위원으로 상담을 거듭하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까운 문제로서 인권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기를 바라며, 겉보기·용모를 둘러싸는 인권문제 「루키즘」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아름다다/아름답지 않다고 느끼고, 어떻게 외관을 평가·판단·차별하고, 그 평가·판단·차별은 무엇을 만들어 내는 것인가? 각각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외관을 둘러싸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에 대해서, 여러분과 고민하고 싶습니다.

201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고 나서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하면 선뜻 어렵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될수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자기자신을 되돌아보고, 사회를 다시 보고, 모든 생명이 살기 쉬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모두 생각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2-1. "나의 인권의 이야기" 고베 개최

왜 우리는 외형으로 판단하는가?

~가마가사키지역의 빈곤 문제 사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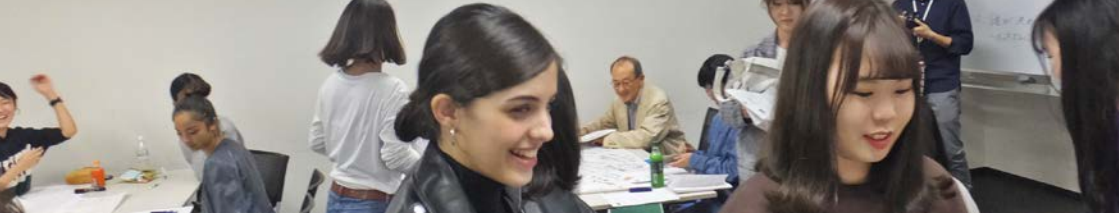
고베 개최의 제 1 부 강연에서는 白波瀬타츠야 선생님 (桃山学院大学 사회 학부 교수)를 강사로 모셨습니다. 白波瀬선생님은 2007 년부터 2013 년까지 지역 복지 시설 「니시 나리 시민관」에서 사회 복지사로 활동하시고, 2018 년부터 니시나리 특구 구상(西成特区構想)의 자문인으로 오사카시 니시나리구 사회 복지의 방향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번 주제의 일부가 되는 “釜ヶ崎”는 오사카시 니시나리구의 북동부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일용 근로자의 도시로도 알려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경제 불황, 그리고 노동자의 고령화 등으로 직장을 잃은 노숙 생활자의 증가라는 문제가 사회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白波瀬선생님께서(으로부터) “외형 × 빈곤 문제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루키즘”라는 단어는 신문의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거의 히트하지않을 정도로 일반적으로 대중화 되지않은 단어입니다. 한편, “외형(외모) 문제”라고 검색하면 많이 히트합니다. 하지만 지금 굳이 “루키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배경으로 외형적인 미추를 중시하는 “사회”가 되어진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키즘”이라는 개념의 특징으로 ① 사람의 외모에 초점을 두는 것, ② 미추와 “바람직함”을 사회가 결정하는 그 방식을 문제 삼는 것, 이 두 가지를 들 수있었습니다 . 특징②는 개인에 초점이 맞춰지기쉬운 루키즘의 문제 의식에 “지역”의 외형 및 특징과 연관된 차별과 배제의 관점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마가사키의 외모(외관)에 대해 白波瀬선생님께서 함께 필드워크를 한 학생의 소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길가 곳곳에 노숙자들이 골판지를 깔고 자고 있거나 도로에 누워 있었다.” “가는 곳마다 강한 냄새가 난 것이 인상적이었다. 안내인의 설명에 따르면 가마가사키 주민의 90 %가 남성이며, 실제로 여성과 어린이는 거의 만나지 못했다.” “경찰 앞에서 별거벗은 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단속하지않는 것은 이상하다.”

이것은 하나의 예이지만, 가마가사키는 이런 외모와 특징을 가진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루키즘의 관점에서 가마가사키를 바라볼때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의 외모가 “일반적이지 않다(보통이 아니다)” 그렇기에 다가가기 어렵고, 피하려하고, 지역차별이 발생하는, 이런 난제를 어떻게 극복 할수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현재 이 지역의 외모를 바꾸는 것을 좋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좋다고 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느정도의 사람들에게는 위화감이나 거부감이 있는 외모를 하고있는 가마가사키이지만 입장이나 가치관의 차이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생각은 다르며, 가마가사키의 현상황 (현재의 모습)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가마가사키가 변해가는 것을 좋아하여도,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입장을 갖고있는 사람들을 고려한 마을만들기(지역조성방식)가 요구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재 가마가사키에서는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예술을 통해 표현 활동을하면서 가마가사키의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외모가 변해가는 가마가사키라는 지역. 우리는 그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각기다른 입장의 사람들의 마음을 소중히하는 지역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2. "나의 인권 이야기" 도쿄 개최

"아름다움"은 누가 결정하는가? ~루키즘에 관한 한일 비교~

도쿄에서 개최된 이벤트에는 니시구라 미키(西倉 実季)선생님(和歌山大学 교육 학부)을 초청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니시구라선생님은 외모에 질환이나 외상을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이번 이벤트는 일본과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사회문제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여성의 외모에 따른 차별을 들 수 있기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루키즘"라는 용어는 "외모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이며, "매력적이라고 여겨진 사람이 우대받고 유리한 입장이 되는 한편, 매력적이지 않다고 여겨진 사람이 기회가 없어지며 불리한 입장에 놓여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루키즘은 단순히 "외모에 집착하는 것"과 "외모를 중시하는"것이 아니라, 섹시즘(성 차별), 레이시즘(인종 차별), 에이브리즘(정상인주의, 장애인 차별과 동의어) 에이지즘(연령 차별) 등과 깊은 관계에 얽혀있어 어떠한 외모의 평가 기준이 누구에게 어떻게 요구되어지는지를 묻는 관점인 것입니다.

미추에 대한 성희롱 문제는 일반적으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외모를 폄하하고 직접적인 괴롭힘,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불특정 인물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미디어에서 외모에 관한 발언을 접하는 것으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되는 간접적인 성희롱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성희롱의 예로서 "여자로 태어나서, CM 을 보고, 텔런트 라든지 여배우 라든지, 그러한 화장품 CM 을 봐도, 자신은 절대로 이 사람처럼 될 수 없다고나할까"라는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추는 서열 개념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언급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추함을 암시할 수 밖에 없다는 측면입니다.

이런 외모 평가를 둘러싼 삶의 어려움에 대처로서 먼저 ①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하는 외모의 특징을 숨기고 수정(하는)할 수 것(특수메이크업과 가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외모의 특징을 수정하고 가리는 것은 즉효성이 있어 쉽게 선택 할 수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숨긴다는 느낌에 주눅이 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있는 것은 자기 자신과 신체에 대해 우리는 항상 자기 모니터링의 시선을 돌리고있는 것, 그리고 신체를 수정하는것이 규범화되어(당연하게 기대되어), 그 "신체를 바꾼다"라는 행위 자체가 한층더 "아름다움"이나 "외모"에 속박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②자신 안에서 외모평가의 의미를 변화시킴으로써 자신과 마주 보는 방법도 소개되었습니다. 흉터가 있고없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나이와 함께 외모는 쇠퇴된다고 인식하고, 비교대상을 이상화하지 않는 것, 또한 탈모증에 대한 조롱의 배경에는 여자는 젊고 아름다운 것이 좋다고하는 풍조가 있음을 밝히는 등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수준에서의 대처를 넘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미"의 규범을 흔들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도 소개되었습니다.

루키즘을 의식하는 열쇠로서 외모평가를 둘러싼 여성들의 삶의 어려움은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닌 "정치적인 사건"이며, "미"는 사회적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외모 평가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내재화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심신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피해자를 낳고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와 "외모 평가"의 관계,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게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3. 외모지상주의(루키즘)의 체험담 / "우리에게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고베와 도쿄에서 실시한 워크샵에서는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① 자신 혹은 주변 사람들이 한/받은 루키즘의 체험, ② 어떤 외관을 "아름답다" 고 생각하는가?의 두 가지에 관하여 참가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카페"라는 집단 토론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①자신혹은 가까운 사람이 한/받은 루키즘의 체험>

- 아토피가 있는 딸이 그 외관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학교내에서의 일에 대해 선생님과 상의했지만, 선생님에게는 실망했다.
- 화장을 하지 않고 친구와 들어서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여보내 주지 않았다. 왜냐고 물으니, 「드레스업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상에 문제는 없었을 텐데, 왜 「예쁘게하다 =화장하다」인지 혼란스러웠다.
- 원래 「妃 (소리:히메, 뜻:공주)」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정되었지만, 태어난 아이가 귀엽지 않아, 이름이 변경이 되었다.
- 자신의 체모가 진한 것을 가지고 친구가 놀린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도 아주많이 신경쓰고 있었기때문에 나쁘게 말한 것 처럼 느껴서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버렸습니다. 또 모발의 양이 많은 것도 놀림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어른이 되어서 그런지, 별로 신경쓰지 않고 유머로 넘겼습니다.
- 직접 겪은 적은 없지만, 한국에 살고 있었을 때에, 바이트를 구하는 중이었는데, 액세서리 판매사원모집안내문에 「 모델학과, 영화학과 우대」라고 쓰여있는거 보고 포기한 적이 있다.
- 어렸을 때부터 「똥보」 「꼬마」 「못난이」라고 불리웠고, 자신의 외모가 사회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고 계속해서 생각했었습니다. 「화장」을

해도 예뻐지지않는다는 생각에 노 메이크였습니다. (지금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남편으로부터, 여자가 화장을 하지 않고 전철을 타는 것은 범죄에 가깝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시해버리지만, 여성에 대한 바램이었거니 생각합니다.
- 분명히 마른 체형의 아이가 「살찌기 쉬워서! 다이어트해야해! 」라는 말에 화가 치민다.
- 편의점 등에서 그래도 예쁜 사람의 계산대에 줄 선 적이 있다. 어쩐지 청결감이 있는 것 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 일에 어울리는 복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얼굴이나 체형이 아니라 복장). 그 쪽이 신뢰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 어디까지가 「평가」인지 모르겠다. 아이들이나 배우 혹은 친구마저도, 겉보기만으로 「귀엽다, 예쁘다」라는 말을 해도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②우리들에 있어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

No.1 스스로에게 자신을 갖는 것. 그 사람다운 스타일.

No.2 미소. 반짝반짝한 표정

No.3 청결감

의견...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갖고 있는 본연의자세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존재라고 인정을 받아 온 사람은, 자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외관⇔자신의 상관관계에 있다. 」 「미소는 나를 받아들여 주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 「표정은 내면의 거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워크시트에서 많았던 회답순으로 No.1~3 까지 정렬했습니다.

외모 ⇔ 자신의 이항 관계에 관하여 :

“자신감”은 이미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름답게 있으세요” 라고 직접적인 메시지는 거의 없지만, 그대신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아 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갖으세요”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중에 우리 안에 “자신감⇔아름다움”이라는 가치관이 각인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아름다움”은 스스로 결정한다하여 성차별이나 인종 차별, 에이지즘 (연령차별)과 장애인차별 등의 ‘(외모의) 아름다움’이 내포하는 차별에 무비판적으로 되어 버리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4. 외모지상주의(루키즘)에 관한 앙케이트 결과 및 고찰

루키즘 현상이 얼마나 익숙하고, 그러나 보이지 않게되어 온 문제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일본어 및 한국어로 앙케이트를 작성했습니다. 연령과 성별, YWCA 회원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폭넓게 다양한 분들이 답변 해 주셨습니다.

<앙케이트 질문 내용>

1. 당신의 특성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2. 당신 자신의 "루키즘"경험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1) 당신은 외모에 의한 평가 · 판단 ·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2) (1)에서 "예"라고 대답 한 분에게 묻겠습니다. 외모에 의한 평가 · 판단 · 차별에 대해 가장 강하게 인상에 남는 경험을 한(받았을) 때의 나이를 가르쳐 주십시오

(3) (1)에서 "예"라고 대답 한 분에게 묻겠습니다. 외모에 의한 평가 · 판단 · 차별 된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복수 응답 가능)

(4) (1)에서 "예"라고 대답 한 분에게 묻겠습니다. 외모에 의한 평가 · 판단 · 차별을 받았을 때, 누군가와 상담 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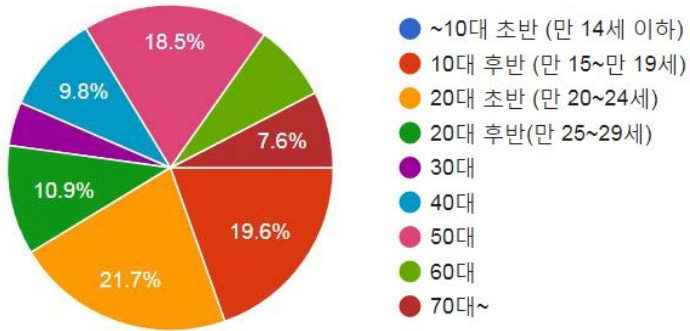
3. 당신 주위 사람들의 "루키즘"경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1)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외모에 의한 평가 · 판단 · 차별에 관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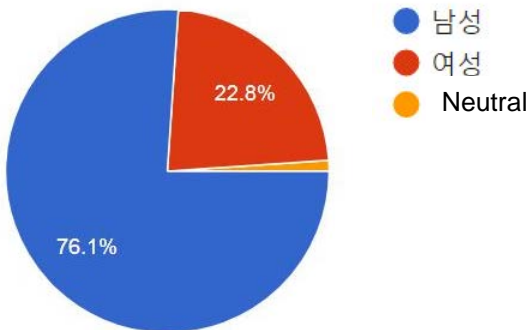
<일본어판 앙케이트 결과 > 응답자 93 명

1. 응답자에 대하여

(1)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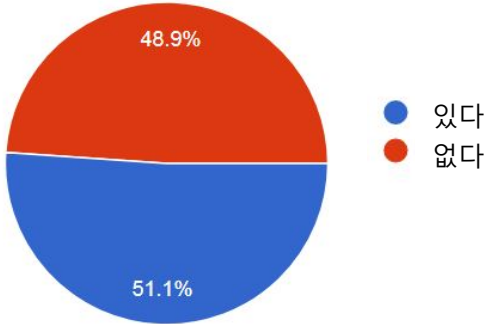


(2)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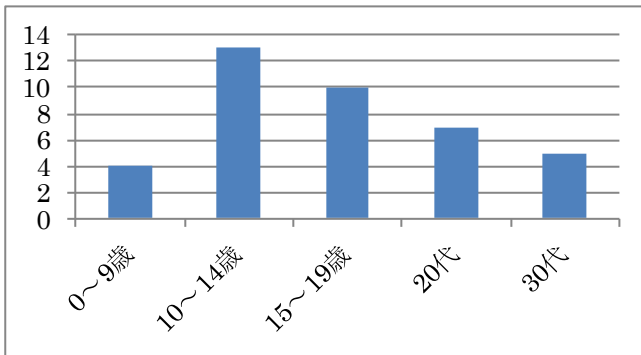


2. 응답자의 「루키즘」의 경험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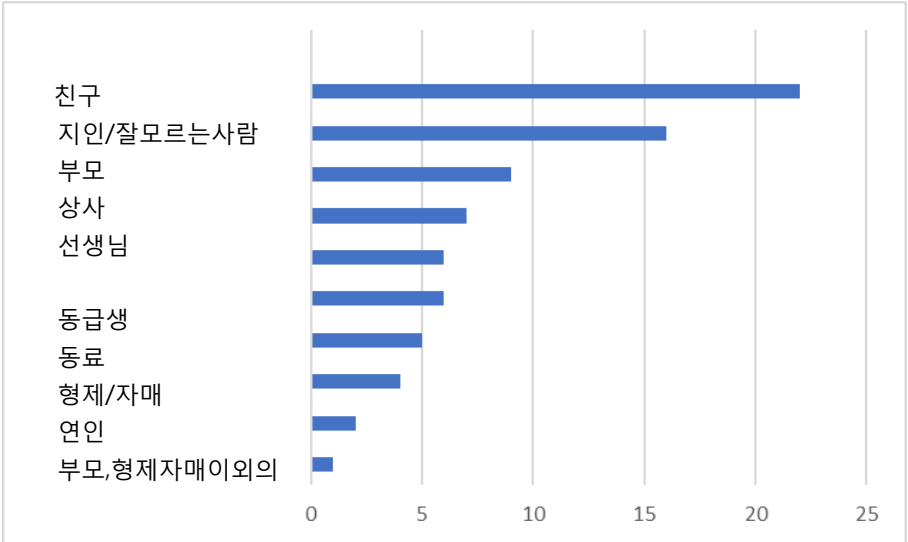
(1) 외관에 따른 평가/판단/차별의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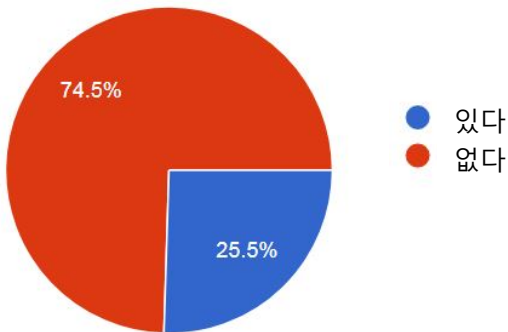
(2) 외관에 따른 평가/판단/차별에 관하여 가장 인상에 남는 경험을 한시기의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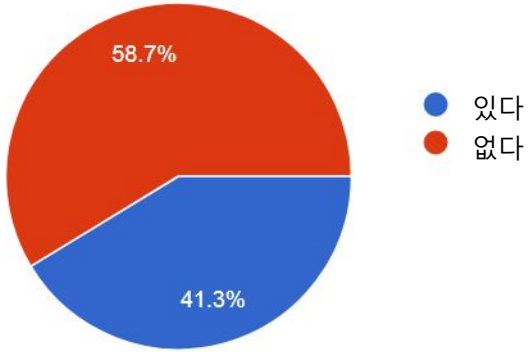
(3) 외관에 따른 평가/판단/차별을 받은 상대와의 관계



(4) 외관에 따른 평가/판단/차별을 받았을때 타인에게 상담을 한 경험의 유무



3. (1) 주위사람들로부터외관에 따른 평가/판단
차별을 받은 경험의 유무



< 일본어판 앙케이트 분석결과 >

- 성별 및 연령별의 결과

루키즘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	외관으로 인한 평가/판단/차별을 받았을때 타인에게 상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	주위사람들로부터 외관으로 인한 평가/판단/차별을 받았은경험이 있다고 응답
-----------------	---	--

	(人)	루키즘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	외관으로 인한 평가/판단/차별을 받았을때 타인에게 상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	주위사람들로부터 외관으로 인한 평가/판단/차별을 받았은경험이 있다고 응답
	(人)	루키즘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	외관으로 인한 평가/판단/차별을 받았을때 타인에게 상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	주위사람들로부터 외관으로 인한 평가/판단/차별을 받았은경험이 있다고 응답
여성 70人 (76.1%)	유스(30歳以下) →31	19(61%)	8(42%)	18(58%)
	미ドル(30~50代) →26	17(65%)	4(24%)	11(42%)
	시니어(60歳以上) →13	3(23%)	0(0%)	2(15%)
	(人)	루키즘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	외관으로 인한 평가/판단/차별을 받았을때 타인에게 상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	주위사람들로부터 외관으로 인한 평가/판단/차별을 받았은경험이 있다고 응답
남성 21人 (22.8%)	유스(30歳以下) →17	7(41%)	2(12%)	4(24%)
	미ドル(30~50代) →3	2(67%)	0(0%)	0(0%)
	시니어(60歳以上) →1	0(0%)	0(0%)	1(100%)

양케이트에 기재된 루키즘의 예

- 어린 시절부터 줄곧 부모에게 "미인이 아니니까 적어도 공부 정도는 열심히 해"라고 계속 들어서, 가장 인상에 남는 사건같은게 아니라 "주옥"입니다.
- 14 세 나 자신이 아니지만, 친구가 다른친구의 얼굴에 대해, 저 얼굴은 못생겨서 키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나 자신도 외모에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다. 지금까지도 자신이 없다. 또 학년에서 예쁜아이/ 멋진아이의 랭킹 조사를 거의 모두에게 돌려 순위를 정하는 아이들이있어서 트라우마가 되었다.
- 자주 누나와 비교되어져서 쳐진다는 말을 들었다.
- 여자답게 하세요. 라는 말을 듣는다. (외모를)
- 버스 안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도 치한을 당할 뻔했다.
- 20 대 · 30 대 시절에 동안에 여성이었기 때문에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똑같은 말을 한 남성의 의견은 받아들여졌다.

<일본어판 양케이트 고찰>

- '외모에 의한 평가 · 판단 · 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에 대해 루키즘을 경험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예상보다 적었다. 그 이유는 기억하지않으려 하고있다, 잊어 버렸다, 애초부터 느끼지 못하는등의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 외모를 평가 · 판단 · 차별을 받아도 다른 사람에게 상담 한 적이 있다고 대답 한 사람의 비율은 적은 것은, 외형에 관한 고민은 상담하기 어려운 것이며, 루키즘이 보이지 않는 문제라고 것으로 생각된다.
- 기억에 남아있는 "루키즘을 경험했다" 고 느끼는 나이는, 응답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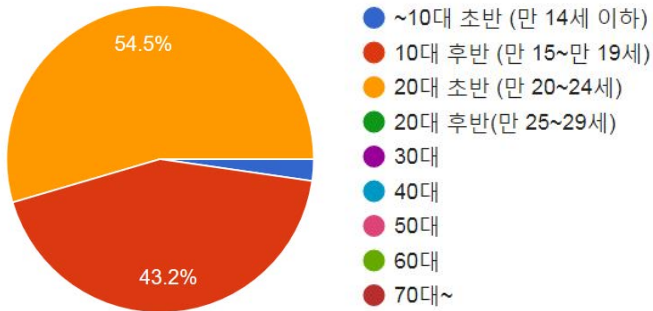
현재 나이에 관계없이 대부분이 10대에서 20대, 빠르면 유년기부터로 대체로 젊다.

- 기억에 남아있는 "루키즘을 경험했다"고 느끼는 나이가 10대의 경우는 학교의 선생님과 동급생, 20대라면 회사 동료·상사 등의 관계의 상대로부터 외모에 대한 평가·판단 차별을 받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나이를 불문하고 친구나 부모라는 응답이 나왔다. 즉, 자신이 소속해 있는 가장 가까운 사회·환경에서 루키즘의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
- 앙케이트 조사는 구체적으로 루키즘의 에피소드를 묻는 질문은 설정하지 않았지만 몇 명의 사람이 경험담을 기입해 주었다. 그 외모에 관한 발언 중 일부는 성 차별 발언도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남녀간에 루키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에 큰 차이는 없었다.
- 유스(30세 이하) 및 중간(30~50대) 세대에서 외모를 평가·판단·차별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시니어(60세 이상) 세대와 비교하여 높다지고 있다.
- 외모를 평가·판단·차별된 경험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상담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어느 세대에서도 50%를 넘지 못했다.
- 노년층보다 유스와 중간세대 분들이 루키즘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컸다. 이것은 젊은 때가 라이프 이벤트(취학이나 취업, 결혼 등)가 많아 그때 그때하고 루키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 젊은 사람에게 취직이나 결혼 등 라이프 이벤트에서 외모가 판단재료의 하나로서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시니어 세대에게는 직장가 가정의 다양한 것들로 판단되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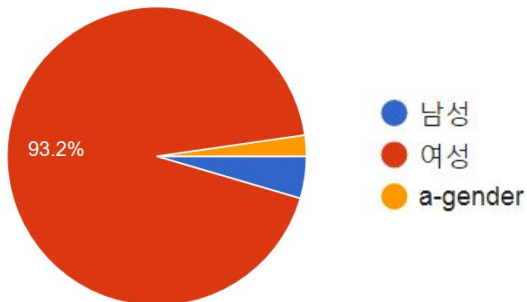
<한국어판 양케이트 결과> 응답자 44 명

1. 응답자 대해서

(1)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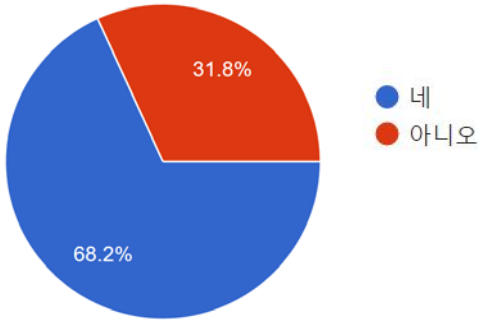


(2)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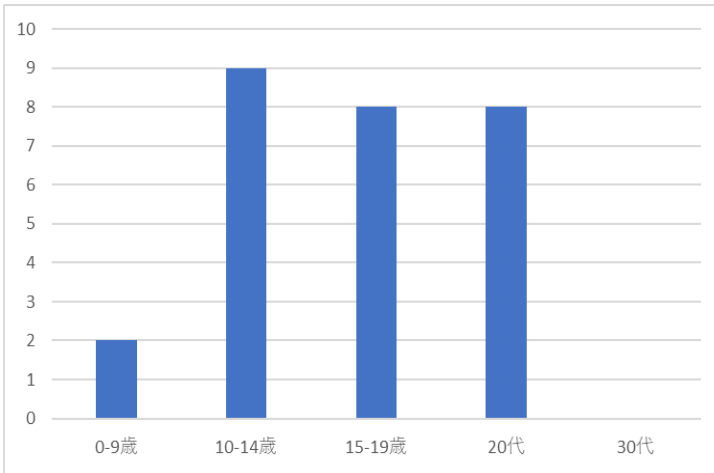


2. 응답자의 「루키즘」의 경험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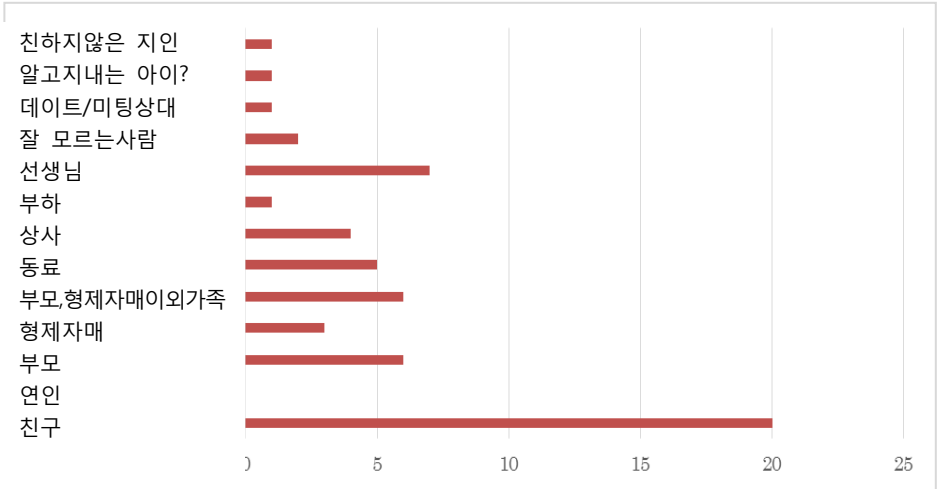
(1) 외관에 따른 평가/판단/차별의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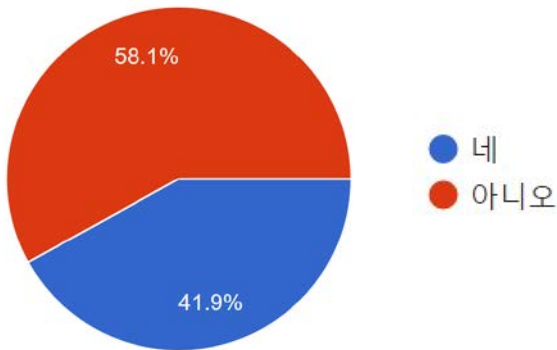
(2) 외관에 따른 평가/판단/차별에 관하여 가장 인상에 남는 경험을 한시기의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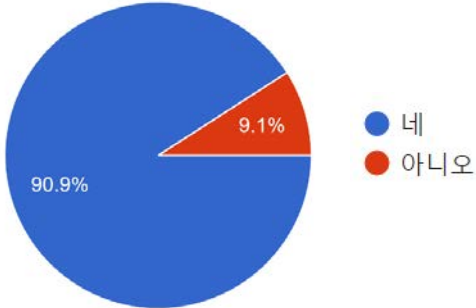
(3) 외관에 따른 평가/판단/차별을 받은 상대와의 관계



(4) 외관에 따른 평가/판단/차별을 받았을때 타인에게 상담을 한 경험의 유무



3. (1) 주위사람들로부터외관에 따른 평가/판단
차별을 받은 경험의 유무



양케이트에 기재된 루키즘의 예

-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외모지적을 당하였습니다. 수차례 저의 외모를 조롱 당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중학생때였습니다.
- 여자 화장은 예의지, 네 얼굴이 예쁜 편은 아니지
- 얼굴이 차가운 인상이라 항상 무뚝뚝할거다, 좀 싸가지가없을 거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고 한다

< 한국어판 양케이트 고찰 >

- 외관을 평가·판단·차별을 한 상대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한국어판 양케이트에서는 친구 다음으로 선생님이 2 위가 되었다. 이것은, 친구관계와 달리, 지도적 입장에 있는 선생님에게서 들었을 경우는 기억에 남으므로, 상위에 들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한국에 있어서의 교사의 학생에의 영향력이나 관계성이, 일본과 다른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외관에 의한 평가·판단·차별에 관한 상담을 받은 경험의 유무」의 항목에 대해서 일본어판-한국어판의 데이터를 비교하면, 「예(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일본어판에서는 41.3%인 것에 비해, 한국어판에서는 90.9%가 된다. 루키즘에 관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한국어판 앙케이트의 응답자쪽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루키즘이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차별적인 언동에 대하여 민감 혹은 실제로 루키즘에 관한 상담 건수가 일본보다 많은 것이 이유로서 생각된다.



6. 한국 청소년들의 목소리



이 소책자 한국 YWCA 청소년에 공유하고 감상을 들었습니다.

I. 한국에서는 외모지상주의(루키즘, Lookism)라고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떤 “누군가”가 정해진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때문에 고통 받는 여러 계층이 생각나고, 그 중에도 “여성”들이 많이 생각나며, 그와 연관해서 여성에게 강요되는 “꾸밈노동(각주 참고)”*이 떠오른다. 우리가 ‘아름답다’ 착각하고 있는 프레임(Frame)으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이 외모로 저울질 당하고 있다.

아름다움의 기준, 정상적인 외모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계속 든다. 흔히들 생각하는 ‘아름답고 정상적인 외모’라는 프레임에 적합하지 않는 대상들에 대해 사람들은 선불리 선입견(Frame)을 가진다. 틀에 박힌 시선으로 인해 차별과 편견이 생겨나고, 그것은 곧 폭력으로 이어진다.

루키즘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일본YWCA에서 진행한 앙케이트를 시작으로 우리가 YWCA이기 때문에 외쳐야 할 루키즘의 사례를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여성에게 가해지는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누가 규정하고 누가 생산하고 있는지, 그로써 누가 피해를 어떻게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연대할 수 있는 운동을 함께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 ‘꾸밈노동’ 정의:

https://femiwiki.com/w/%EA%BE%B8%EB%AF%B8%EA%B8%B0_%EB%85%B8%EB%8F%99

II. 루키즘을 단순히 외모의 편견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섹시즘, 레이시즘, 에이브리즘, 에이지즘 등과 연관시켜 본 것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방향이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

루키즘 경험 에피소드에서 선생님에게 상의 했을 때 선생님의 반응이 어땠었는데 추가 하면 조금 더 의미 전달이 분명해 질 것 같다

또한 루키즘에 대한 설문 응답자의 비율이 양국 모두 한 성만을 쏠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루키즘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더 높은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루키즘의 경험 유무를 조사하여 비율을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루키즘을 경험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남성의 경우가 더 그러한데 설문조사를 할 때 간과하기 쉬운 루키즘의 예시를 들어준다면 조금 더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경우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던 언어나 하는 행동 등에서 루키즘을 표현하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III. 가마가사키 사례는 루키즘의 적절한 예시인지 잘 모르겠다. 지역과 루키즘의 관계를 설명할 다른 사례도 더 많을 것 같다. 루키즘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한 것은 좋았지만 왜 루키즘이 정치적/사회적 문제인지 설명하고 독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글이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

IV. 두차례에 걸친 이벤트는 매우 의미있었던 것 같다. 루키즘은 이미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며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유독 심한 것 같다.

가마사키는 내가 실제 다녀온 지역이다.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미지에 대해서 가마사키를 언급한 것은 매우 좋았던 것 같다. 그러나 사이것이

루키즘과 무슨관계가 있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간다.

글에 나와있듯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루키즘을 겪는다. 이를 조사를 통해 잘 나타낸것 같다. 실제 사례를 읽어보니 일본과 한국에서 겪은 경험들이 매우 비슷했다. 사회적 분위기와 루키즘을 조장하는 문화 등 이는 엄연한 정치적·사회적 문제다. 글과 강연에서 이를 잘 짚어낸 것 같다.

내가 알기로 일본은 '여자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여성의 외모의 중요도가 높다. 화장품 산업도 한국 못지않게 크게 발달되어있는 사회에서 한국과 50% 가량 큰 결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된다.

IV . "루키즘 경험 에피소드/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움' 이란 무엇인가"
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 외모로 차별을 받는다거나 외모 평가를 하는 등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설문조사를 실시 할 때 연령를 정해놓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edited and issued by
YWCA of Japan

Tokyo YWCA building Rm302, 1-8-11 Kandasurugadai,
Chiyoda-ku, Tokyo 101-0062 Japan

tel. 03-3292-6121 fax. 03-3292-6122
mail. office-japan@ywca.or.jp <http://www.ywca.or.jp/english/topnews.html>